

# 화순군 꽃강길, 500만 주 봄꽃과 함께하는 봄 축제 개최

## 노란 유채와 다채로운 봄꽃이 어우러진 유럽식 정원 선보여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화순읍 꽃강길 일원에서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봄꽃야행'을 주제로 벽라교부터 삼전교까지 이어지는 2.1km 구간(약 6ha규모)의 꽃강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유채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경관이 낮과 밤 각각 다른 매력으로 연출될 예정이다.

특히 축제 기간에 총 500만 주의 꽃과 20종의 조형물이 배치돼 낮에는 화사한 봄꽃 풍경을,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채 외에도 오스테오스펠럼, 금어초, 크리산세멈, 리나리아, 팬지, 비올라 등 20여종의 초화류 30만 본도 함께 식재돼 더욱 풍성한 색채 경관을 만들 예정이다.

올해 꽃강길은 지난해보다 공간 연출이 한층 확대돼 전 구간이 하나의 테마형

정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봄꽃 경관지 일원은 나드리 복지관 앞 공터를 시작으로 ▲엘컴존 ▲플로라가든 ▲어린이정원 ▲봄꽃정원 ▲생태정원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먼저, 엘컴존(나드리교~정교다리 일원)은 네모필라 꽃길과 교각 전면 소정원, 난간걸이 화분, 수상 꽃 조형물 등이 어우러진 '봄의 정원' 콘셉트 공간으로 조성돼, 방문객에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다.

플로라가든(나드리교 음악분수 구간)은 유럽식 정원을 모티브로 한 정형식 공간과 겨울정원이 결합된 핵심 구역이다. 궁전 게이트, 분수, 로툰다, 그리스 기둥, 열기구 등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돼 낮에는 정교한 정원미를, 밤에는 조명과 봄꽃이 어우러져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어린이정원(나드리복지관 인근)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수달과 거북이 토퍼어리, 기차 조형물, 동화마을 콘셉트 시설 등이 배치되며, 특히 수달 조형물은 화순천 서식 수달을 모티브로 제작돼 지역 생태적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봄꽃정원(나드리교~철교 구간)은 대규모 유채밭과 네모필라, 델피늄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낮에는 선명한 색채 대비가 돋보이는 풍경을,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또 다른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태정원(별교천 일원)은 액자형 조형물과 해오름문, 봄꽃 식재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책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야간에도 여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조명을 활용한 야간 개방으로 봄꽃 관람 시간을 넓힌 점도 특징이다. 꽃강길 전 구간에는 경관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되며,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



대와 연계한 연출을 통해 시간대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화순군은 성공적인 봄꽃 축제를 위해 지난해 겨울부터 만수리와 남정리 육묘장에서 세심한 환경 조절과 생육 관리를 이어왔으며, 꽃들은 개화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식재될 예정이다. 군은 4월 중순 유채가 만개할 무렵 축제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김중환 기자



## 완도군, 70억 투입 청정 바다 보전 힘쓴다!

### 해양 쓰레기 수거부터 운반, 처리까지 체계화 시스템 구축

완도군이 청정 바다 보전을 위해 올해 총 70억 원을 투입,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예산 투입은 해마다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외래 쓰레기와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 환경 저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정됐다.

군은 쓰레기 수거 차원을 넘어 발생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마다 추진해 온 해양 환경 개선 사업도 이어간다.

주요 사업으로는 ▲파라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 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 쓰레기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바다 지킴이 365 공동대 운영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정화 운반선을 도입, 6개 읍면의 16개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총 40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는 접근이 어렵고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던 무인 도서의 해상 부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군 관계자는 "해양 환경 보전은 어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을 가꾸는 일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청정 바다 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강진군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다시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총 11,729가구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포함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

## 강진군, 4~6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13개 복지사업 대상 수급 적정성 점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강진군은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조정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강진군은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위기가구는 적극 발굴해 긴급복지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함으로써 군민의 수급권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며 "군민의 권익을 세심히 살피면서 공정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한 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며 군민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산불예방·미세먼지 저감 '호평'... 찾아가는 일손 돕기도

전남 함평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함평군은 26일 "군 농업기술센터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산불예방은 물론, 고령농 등 취약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파쇄지원단은 한국여성농업인함평연합회에서 추진하며 3~4월, 11~12월에 집중 운영한다. 센터는 산림인접지역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우선지원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은 미리 파쇄하지 않으면 과수원 전정가지, 고춧대, 깻대 등 각종 영농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산불 및 인명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사전에 잘 말린 뒤 파쇄해야 한다.

문종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불 발생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농가에 힘을 보태고 깨끗한 농촌 가꾸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보성군, 생활밀착형 자살예방 '생명이어 온(漚)라인' 가동 한국야쿠르트 순천연향점과 함께 일상 속 생명안전망 강화

보성군은 지난 25일부터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국야쿠르트 순천연향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생명이어 온(漚)라인(Line)'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생활터 기반 인적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사업에는 한국야쿠르트 순천연향점 소속 프레스매니저 가운데 보성 지역을 담당하는 2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사전 사업설명회와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후 '하트링크 마을지기'로 활동한다.

'하트링크 마을지기'는 제품 배달 등 일상적인 대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정서적 변화,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살피고, 필요 시 우울증 및 자살경향성 검사를 안내·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독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병백을 활용해 자가검진용 검사지를 배부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은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53-5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성/김윤기 기자

## 영광군,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개발 품평회 개최 농가별 브랜드 완성 성과에 감동과 호응 이어져

영광군은 지난 3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 개발' 수료생 기념품평회를 개최하고, 교육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품평회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농·특산물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을 소개하고 상호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디자인한 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농가별 고유의 이야기와 생산 철학을 바탕으로 브랜드 기획부터 디자인, 상표 출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브랜드 개발을 통한 탄생한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본꿀(대표 김동규 / 양봉) ▲참조은정미소(대표 김봉주 / 벼),

▲꼬수당(대표 김영덕 / 땅콩), ▲문뜰판(대표 문준기 / 대추방울토마토), ▲단단 딸기(대표 박성규 / 딸기), ▲농주마켓(대표 박신애 / 복숭아), ▲tracing(대표 이상철, 대파), ▲상애농장(대표 이수연 / 고구마, 참깨, 콩), ▲조분(대표 황명선 / 배)

특히, 브랜딩 이론부터 실습, 개별 컨설팅까지 아우른 실전형 교육을 통해 참여 농가들은 상품성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완성하였고, 품평회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정재욱소장은 "이번 교육과 품평회를 통해 강소농들이 차별화된 브랜드 역량을 갖추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모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햇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기어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및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고도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있는 건데 말이다.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갈 것  
만드는 기어할 것.  
잠시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모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우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